

60세 이상 부부중 1명만 주택연금 가입 가능하다

28일부터 시행... 약 54만명 추가 가입대상에 포함 될 전망
주택금융공사 법정자본금, 현행 2조→5조원으로 상향 조정

앞으로는 부부 중 한 명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풀자로 한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법은 주택연금 기입연령 기준을 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이라도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단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연령을 적용해 산정한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기준 개선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 기입희망자에 대한 기업 편의 제고와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기입 후 부부가 이혼할 경우 우에 대한 혼석도 마련됐다.

1인 소유 주택일 경우 주택소유자는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배우자는 이혼한 뒤부터 주택연

금을 받을 수 없다.

주택이 공동 소유일 때는 이혼 후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전부를 한 사람에게 이전해야 한다. 소유권을 이전 받은 1인 만이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법에는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주택금융공

사에 대한 자본금이 확충될 경우 주택금융 공급을 위한 유동화증권의 안정적 발행과 주택금융공사 재정 건전성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수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2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14개 에너지 공공기관과 선금 지급 활성화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선금 지급률 계약금 70%까지 확대

전기안전공, 14개 에너지 공공기관과 활성화 이행 협약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2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등 14개 에너지 공공기관과 함께 계약기업 및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선금 지급 활성화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상원 사장은 "공공기관과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일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계의 구축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더욱 책임 있는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정부 부처 고용영향 자체평가제 도입

5월 말까지 예산안 요구

20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앞으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예산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종구 프레스센터

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고용영향 자체평가'를 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현재 추진 중인 계획사업과 신규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자체 평가해 5월 말까지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을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각 부처 주요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018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예산안 편성시 정책의 우선순위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참고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2+1 핵심 개혁 과제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새출구조정과 재정위험 선제대응으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지속 추진하고, 임무지출 과소편성 및 누락 등 재정규율을 미준수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실적 향상을 위한 재정규율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주 기자

2H)은 고탄력 3중 중창을 사용해 쿠셔닝이 좋고 발기력과 뒤큐치 부분에 금형 구조를 적용해 내구성을 높인 제품이다. 블랙·블루·실버·핑크·화이트 등 총 5가지다. 가격은 24만원.

중등산화 제품인 '니아니피 이엑스 2H(DXP 2H)'도 선보인다. 나이도가 높은 등반에서도 착화감이 뛰어나도록 했다.

쿠셔닝이 우수한 2중 밀창(아웃솔) 구조로 제작해 관절이 더해지는 충격과 피로 누적을 개선했다. 밟 형태와 구조를 고려한 인체공학적 설계로 착화감이 편안하다. 색상은 네이비·블랙 2가지다. 가격은 28만5000원.

다이나믹 트레이일 러닝 2H(DTR)

기사제보 288-9700

노스페이스, 봄맞이 신발 3종 선보여

노스페이스는 아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을 맞아 신발 3종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 제품인 '니아니피 하이킹 위킹 1H 보아(WLK 1H BOA)'는 근교 위킹 부터 중거리 트레킹까지 폭넓게 활용 할 수 있다.

전방향 투습과 방수가 가능한 고어텍스 서 라 운드(GORE-TEX SURROUND) 기술을 적용해 신발 내부의 땀과 열기를 효과적으로 배출해 준다.

다이얼로 외이어를 조절해 신발 끈을 조이는 보아 다이얼 시스템(BOA

DIAL SYSTEM)으로 편리성도 높였다.

색상은 블랙·블루·실버·핑크·화이트 등 총 5가지다. 가격은 24만원.

중등산화 제품인 '니아니피 이엑스 2H(DXP 2H)'도 선보인다. 나이도가 높은 등반에서도 착화감이 뛰어나도록 했다.

쿠셔닝이 우수한 2중 밀창(아웃솔) 구조로 제작해 관절이 더해지는 충격과 피로 누적을 개선했다. 밟 형태와 구조를 고려한 인체공학적 설계로 착화감이 편안하다. 색상은 네이비·블랙 2가지다. 가격은 28만5000원.

다이나믹 트레이일 러닝 2H(DTR)

기사제보 288-9700

아야라야사, 썬크림 출시

미백 등 3중 기능성 갖춰



아야라야사가 아야라야사 CS 앤티-링크를 썬크림과 연꽃 줄기 세포 배양액추출물 화장품(PURIGEN STEM CELL 화장품) 효능의 탁월함을 강조하면서 판매대리점을 모집한다.

아야라야사는 대표는 줄기세포 배양액추출물에서 피부세포성장인자, 혈관내피성장인자, 간세포성장인자, 혈질변환성장인자, 프로콜리겐 등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성장인자를 함유하고 있으며

썬크림은 SPF41/PA+++와 UVA, UVB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백탁현성이 전혀 없고 주름개선 효과 및 미백 등의 3중 기능성을 가진 탁월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김 대표는 "줄기세포 화장품(Stem-cell Cosmetics)은 의학적으로 인체의 간, 폐, 심장 등 구체적 장기를 형성하기 이전에 분화를 멈춘 바이오단계의 세포를 인체 줄기세포가 아닌 식물 줄기세포로 제품화 했다"

고 말했다.

"줄기세포는 '상처치유, 혈관재생, 조직개선, 면역조절, 분화기능, 사멸세포방지, 노화회춘' 등에 탁월한 기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현재 화장품 판매 대리점을 꾸준히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고 밝혔다.

대리점 개설을 원할 시 아야라야사는 김정은 대표(010-3565-6275)에게 문의하기 바랍니다.

/옥산=장양원 기자

전북종자원, 콩 보급증 추가 접수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이경일)은 2015년 콩 보급증에 대한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기간은 오는 4월 8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다. 품종은 대원콩 109톤, 대풍콩 20톤, 우람콩 48톤, 태광콩 132톤, 풍산나물콩 58톤 등 5품종 367톤이다.

신청한 종자는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해당지역 농협을 통해 신청농가에 공급된다.

미소득 종자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국립농수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 인증 시스템(<http://envirogo.go.kr>)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에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 미소득 종자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 전북지원(063-530-3670)에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의산국토청, 하천 관리 드론 투입

국가하천 관리를 위해 드론이 투입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하대성)은 22일 익산국토청 회의실에서 대전국토청과 공동으로 '드론을 활용한 하천관리 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하천시설과 하천공사 현장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재난 발생 시 대응 등에 드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인근 국가하천인 민경강으로 이동해 직접 드론을 띠워 효율적인 하천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논의도 진행했다.

의산지방국토관리청은 하천 현장에 드론을 활용할 경우 사업 시작 전 현장주변여건과 토지 정보를 확보해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와 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공사 중에는 전반적인 추진진황 등을 한눈에 확인 가능하다. /신광영 기자

농어촌공 새만금사업단 내부평가 관리계획 회의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박종대)은 22일 사옥 대회의실에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2016년 내부평가 관리계획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5년 평가결과 분석과 함께 2016년 내부평가 지표별 년간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각 부별 협업을 통한 성과지표 설정, 직원간 업무공감대 형성 등 소통의 징이 되었다.

박종대 단장은 "2016년 내부평가 최우수 부서 달성을 위해서는 지원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협업을 통해 경영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기자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개점 2주년 행사를 진행 합니다.

진안농협하나로마트에서 기분좋은 한해를 시작하세요!

2주년 기념행사

2주년 기념행사